

곡성군-거창군, 문자사과로 돈독한 관계 이어가

1998년 10월 9일 자매결연 이후 23년간 이어와 올해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시기 극복 의미 담아

곡성군이 거창군으로부터 양 지자체의 유대를 상징하는 문자가 담긴 '문자 사과'를 선물 받았다고 밝혔다.

문자 사과에는 곡성군에 대한 거창군의 애정만큼 곡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자가 새겨졌다. 곡성군의 슬로건인 '함께해요 희망곡성'을 비롯해 '세계장미축제', '섬진강기차마을', '대항강 출렁다리' 등 곡성군 대표 상징물들을 거창군의 특산물인 사과에 표현한 것이다.

전남 곡성군이 경남 거창군과 특별한 우정을 이어온 것은 23년 전부터

다. 1998년 10월 9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양 기관은 서로 활발하게 교류해 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마다 곡성-거창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열어 친목을 다졌다. 또한 농업경영인 교류대회, JC 친선체육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인연을 확대하고 있다. 수해나 폭설 피해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서로 복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문자 사과 교류는 거창군이 지난해 곡성군에서 발생한 섬진강 수해를 위로하기 위해 시작했다. 지난해 곡성군

에서는 유례 없는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는 등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때 거창군은 낙심하고 있는 곡성군민을 위로하고자 다양한 수해 복구 지원과 함께 힘이 되는 문자를 사과에 새겨 전달했다. 곡성군은 거창군의 응원을 받아 읍지를 내 수해 복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곡성군 역시 감사의 문자를 사과에 담아 거창군에 전달했다.

올해 문자 사과 교류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곡성군 측도 10월말 경 거창군에 문자사과를 보내 화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 지역의 우호를 다시 한 번 돈독하게 한다는 생각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힘든 시기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응원해



주는 거창군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 곡성=양해영기자



장성군, 올해 황룡강 노란꽃잔치 취소 결정 코로나19 방역 집중

장성군이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황룡강 노란꽃잔치 온라인 개최를 취소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데 따른 조치다.

군은 가을을 맞은 황룡강에 많은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코로나19 안심방역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부터 열리고 있는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장성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다. 잠깐만 가득했던 강변에 군민들이 직접 꽃을 심고 가꾸게 되었다.

버려진 땅에 가까웠던 황룡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으로 변신하며 3년 연속 100만 방문을 기록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난해에는 노란꽃잔치를 취소하고 선제적인 방역에 힘썼다. 올해에는 오프라인 축제 대신 비대면 온라인 축제를 기획했으나 수도권을 비롯한 타 시·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마저도 전격 취소하게 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노란꽃잔치 취소는 장성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황룡강에 핀 10억 송이 가을꽃을 감상하려는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심방역기간'을 운영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은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안심방역기간을 갖고 황룡강 방문객에게 ▲안심플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총 4개소의 통과형 방역게이트와 자율방역존(zone) 40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현장마다 방역계도요원을 투입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구례수목원, '가을벚꽃' 활짝

가을의 시작 알리는 가을벚나무 꽃 개화...관람객 눈길



구례군이 운영하는 구례수목원에 아름다운 가을벚꽃이 개화해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벚꽃이라 하면 화려한 봄별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구례수목원에

피어난 벚꽃은 가을별에 화사하게 피어나 가을의 전령처럼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가을바람을 머금고 수줍게 피어나는 '가을벚나무(어티날리스, Prunus subhirtella

'Autumnali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가을벚나무는 봄과 가을에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춘추벚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내에는 1978년 영국 힐리어(Hillier) 농장에서 천리포수목원에 들어와 처음 소개되었다. 일반 벚꽃에 비해 꽃송이가 약간 작고 분홍빛 겹꽃의 형태를 띠는데 희귀성과 아름다움을 영국왕립원예협회로부터 인정받아 AGM(Award of Garden Merit)를 수상했다.

또한, 구례수목원에는 가을을 알리는 다양한 꽃이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라색 탐을 증층이 쌓아올린 총꽃나무 ▲애뜻한 사람의 꽃 석산 ▲가을의 향기와 청초함을 주는 나도사프란 ▲가을 햇살 아래 연보라 빛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별개미취 등이 지난 무더웠던 여름의 기억을 잊게 한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오는 31일까지...노후 건축물 등 42개소 대상

나주시는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관내 위험시설 집중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사회적 안전운동 성격의 제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15년 도입된 노후·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을 관리한다.

시는 공동주택·건설현장·하수처리 시설·산사태위험지역·문화재 등 6개 분야 시설물 4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환경·에너지 5개소, 생활·여가 9개소, 건축시설 20개소, 산업·공공장 1개소, 보건복지·식품 1개소, 기타 6개소다. 정찬균 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총괄기획', '현장점검', '상황관리' 3개 팀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소방·건축·가스·전기 설비 안전 점검과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즉시 조치가 가능한 점검 항목은 긴급 조치하고 기타 보수·보강 등을 요하는 시설물은 이력 관리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악취저감미생물 무상공급대상 확대

기존 소·돼지에서 전 축종으로...위생축산·주민 생활권 향상 기대

담양군은 축사 악취를 저감해 주는 악취저감미생물의 공급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10월부터 친환경 경미생물센터의 미생물공급 확대 및 악취저감 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해 미생물의 무상공급대상을 소·돼지에서

전 축종으로 확대해 공급할 방침이다. 군에서 공급하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의 특허균주 악취저감 미생물의 희석액을 축사 내 벽면과 바닥에 분무하면 축사 내 암모니아, 황화수소 가스 등으로 발생된 냄새 성분을 암모니아 65%, 황화수소 42%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악취저감미생물배양액은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관내 축산농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축종별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20ℓ씩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담당(061-380-341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파손

전남기술과학고—동구리 복구 완료

화순군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전남기술과학고—동구리 구간' 도로와 배수관을 복구했다. 전남기술과학고에서 동구리 구간 연장 570m, 폭 15m 도로는 작년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전 구간을 통제해 왔다. 군은 지난해 10월 수해복구 실시계획 용역을 긴급 시행해 올 4월부터 복구 사업에 착수했다. 국비와 군비 6억 4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도로와 급



류 피해의 주요 원인인 배수로가 지 정비해 근본적 원인도 해소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